

# 추경호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민간투자 촉진”

(경제부총리)

## 비상경제장관·수출투자대책회의

정책금융·공급망 등 지원 계획  
산업부 통해 세부 방안 발표

중소 맞춤형 수출 보완 대책도  
해양식량자원 수출 증진 도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진하겠다”며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디스플레이 세부 지원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수산물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중

점 부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식량자원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된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여 지속되는 등 난관에 처해 있다. 수출 타개를 위한 긴급처방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곧 내놓을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웃도는 상황에 수출가격 경쟁력은 이미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수출 정상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중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직원 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 부담금도 완화되며 ‘부담금 영향평가’가 신설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염전 자외선 버틴 균… 화장품으로 재탄생

극호염성 미생물 16종 후속 연구  
자외선 유해 작용 억제·항산화 효과

태안·신안 지역 등 국내 염전에서 살아남은 균을 담은 화장품이 머지않아 개발될 전망이다. 이러한 호염성(짠 것을 좋아하는 성질) 균이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인천대 서명지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외선에 내성을 가진 극호염성 미생물(고균) 16종을 발견했다고 17

일 밝혔다. 국가생물종목목에 등재될 예정인 이 균종들은 화장품 소재 활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거치게 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염전 등 국내 드문 극한 환경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을 국가생물종목목에 등록해 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들 생물자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균종들은 염전의 강한 자외선 및 수분 증발에 의한 세포 파괴를 막기 위해 박테리오투베린(bacterioruberin)이라는 붉은색 유기 색소 카로티노이드

를 만들어 낸다.

연구진은 이 색소의 자외선 유해 작용 억제와 항산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식물에서 유래된 토마토의 리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에 비해 더 높다는 서방의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박테리오투베린 색소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고급 향노화 피부관리 제품이 독일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다”며 “이에 착안해 이번에 발견한 자생 호염성 고균들을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인천공항 박물관 특별기획전’ 선보

인천국제공항공사·국립중앙박물관 협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백제 문양벽돌과 조선 후기 목가구를 주제로 한 ‘2023 인천공항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 위치한 인천공항 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규 전시는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 문양벽돌 소장품을 전시하는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과 인천공항 박물관의 조선 후기 목가구 소장품을 전시하는 <전이 : 한국의 가구>의 두 종류의 기획전시로 구성됐다.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 전시는 박물관 안쪽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국립부여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으로서 약

14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문양벽돌 진품 8점을 선보인다.

박물관 입구 전시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전이 : 한국의 가구> 전시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박물관 오픈 이후 공사가 처음 선보이는 자체 기획 전시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주제로 공사가 소장한 조선 후기 목가구 10점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목가구 12점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을 이용하는 여객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인천공항 박물관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3층 서편 122번 탑승구 부근(면세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허정윤 기자 zekova@

## 중진공-SK실트론, 中企 ESG 경쟁력 제고 나서

ESG·탄소중립 진단 무상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차세대 ESG 비즈니스를 선도하기 위해 SK실트론과 함께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진공은 SK실트론과 17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SK실트론 본사에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주요국들의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ESG·탄소중립 전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탄소중립 진단 무상 지원 ▲우수기업에 실선 인센티브 제공 ▲ESG·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등 ESG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아울러 중소기업 탄소 상해 배출권 시장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진공은 협력기업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ESG·탄소중립 전문가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



(왼쪽 3번째부터)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과 이영석 SK실트론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경북 구미 SK실트론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팅을 연계 지원한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ESG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K실트론은 협력기업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성한 동반성장 협력펀드를 활용해 ESG·탄소중립 실천 협력기업에 설비구매 및 운영자금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협업을 넘어 민·관 ‘협치’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과 대기업이 쏠아올린 최초의 신호탄인 만큼 최근 불거진 반도체 침체와 무역 적자라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도약하는 혁신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모기업과 함께하는 공급망 ESG·탄소중립 공동대응 지원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공급망의 ESG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계 ESG·탄소중립 생태계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견련-통계청, 중견기업 통계 고도화

정확성 대폭 강화… 교육 등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통계청과 협력해 중견기업 통계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중견기업 경영 혁신 및 신사업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련은 지난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의 수요를 폭넓게 반영한 통계 품질 제고와 정책적 활용성을 최대화한 종합적인 중견기업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통계청이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기업수, 매출, 고용 등 부문별 통계의 정확성을 대폭 강화하고 중견기업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



(왼쪽부터)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훈 통계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도록 중견기업 통계 서비스 개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정책은 물론 중견기업 경영 전략이 보다 풍부한 통계 데이터 기반 위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요에 맞는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통계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